

다는 廉氏 및 同行한 上記 兩先生의 말이다. 「咸通」年間이라 하면 唐懿宗 때로서 新羅 景文王代에 該當한다. 實物이 없어 遺憾스러운 일이나 이러한 口傳은 前述한 柱礎石과 함께 이 部落이 羅代의 古刹址임을 確證케 함에 있어 貴重한 一資料가 된다 할 것이다. 圓座柱礎石의 實測値는 (cm) …… 一邊長 六八·一 邊長 五四 圓座內圓徑 三六 高 〇·二 中圓徑 四四·五 高一·五 外圓徑 四八·五 高 〇·四이다.

二、石佛坐像

邑內에서 上記 基谷部落으로 오자면 洞裏에 들어서기前 藥峴(俗稱 약 물재)을 지나게 되는데 路邊左側에 奉安한 坐佛 一軀를 볼 수 있다. 이 石佛의 原位置는 水晶山(註) 西麓으로서 下半이 埋沒되었던 것을 數年前에 平谷里洞民들이 收拾하여 現位置로 移安한 것이라 하는데 그 原位置를 洞民들이나 秀峰國民學校 安先生도 알고 있다. 하기에 現地를 踏查했으나 別다른 遺蹟을 發見하지는 못하였다. 佛像은 砂質이 많은 花崗石이어서 各部의 彫飾에 磨損이甚하며 頭部는 缺失되어 現在는 시멘트로 新造하고 結跏趺座한 兩膝部가 破損되고 兩手도 缺損되었다. 座臺도 없어 現在는 시멘트로 넓은 佛壇을 마련하였다. 右肩偏袒의 法衣는 兩腕에 걸쳐 兩膝을 덮은듯 하나 膝部의 破失로 그 衣文은 볼 수 없다. 造成年代는 胸前의 衣文이나 兩腕部의 彫刻手法으로 보아 高麗中期로 推定된다. 비록 完全치 않은 破佛이지만 全혀 記錄도 없는 新資料이기에 簡單히 紹介하여 둔다. 實測値는 (cm) …… 現高 九三、肩幅 六一·五 胸幅 四六이다.

끝으로 現地調査時 많은 도움을 주신 前記 廉鍾敏氏와 金富年 安孝景 兩先生께 感謝한다.

(註) 陰城邑 東北쪽에 位置하였고 平谷里는 그 南麓의 部落이며 山頂에는 石城이 遺存한다.

「東國輿地勝覽卷六十四(山川) 水精山 左縣東三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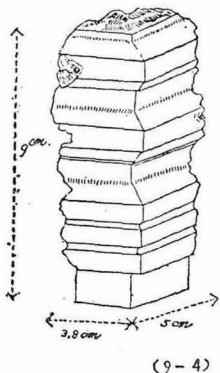
〔古跡〕「古山城 縣水精山上 石築周一千二百七十一尺 高丈餘 內有一井 今廢城之南有古邑遺址號官坪」을 參照

東院里 石塔內 發見 蠟石製小塔補

李 殷 昌

忠清南道 公州郡 新豐面 東院里 院洞에 三層石塔 一基가 있어 一九六二年 十二月에 解體修理하였는데 이 修理當時 石塔 下底 土中에서 遺物이 出土되어 本誌에 金永培氏의 報告 ①가 있었고 또 이들 遺物中에는 蠟石製小塔 七基가 收拾되어 筆者는 이에 對하여 詳報한 바 ② 있다. 그런데 一九六八年 二月 十四日에 公州博物館에 들렀다가 東院里 三層石塔 地點에서 出土된 蠟石製小塔 一基를 李永樂館長의 紹介에 依하여 一見할 수 있었다.

東院里石塔內 發見 蠟石製小塔 一基가 追加되었으니 前記 七基에 一基記를 加하여 모두 八基에 達한다. 이는 「院洞」部落에 居住하는 村婦가 前三層石塔 地點에서 發見한 것을 公州博物館長 李永樂氏가 收拾한 것이다. 小塔은 二面만이 殘存하고 二面은 破缺되었는데 現存 實測値는 總高 九cm이요 第一面 最大幅은 三·八cm이며 第二面 最大幅은 五cm로 되어 있다. 造塔樣式은 基壇部와 二層塔身으로 形成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基壇은 縮少된 方形下石과 廣大한 方形上石으로 構成되었는바 上石에는 上下 二條의 홈(溝)을 橫으로 파서 둘러었다. 塔身은 隅柱가 없는 屋身과 反轉이 없는 屋蓋로서 二層을 만들고 三層은 屋身部만이 있는데 各層屋蓋는 落水面勾配가 表示되고 檐下는 仰斜面으로 되어 一層級の 屋蓋받침이 線刻되었다. 이 小形塔의 特異點은 ①基壇이 特殊構造를 하였고 ②各層屋身の 高가 낮으며 ③比較的 輕快한 맛이 없고 重厚한 便이다. 이는 石塔을 模作한 것인



바亦是 이미 報告된 七基와 같이 麗代의 所作이라 하겠다.

石塔內에 多數基의 小形塔을 供養하는 例는 桐華寺石塔 ③·奉化 西洞 里東三層石塔 等 ④의 九十九基供養例를 비롯하여 禪林院址三層石塔 ⑤ 과 其他例가 있는데 東院里石塔도 그 類例의 系統에 들어야 할 것이다.

註

- ① 金永培 「公州新豐里三層石塔內發見遺物」(考古美術第四卷第八號)
- ② 拙稿 「東院里石塔內發見 蠟石製小塔」(史學研究第十七號)
- ③ 李弘植 「桐華寺金堂庵 西塔 舍利藏置」(亞細亞研究第一卷第二號)
- ④ 黃壽永 「奉化西洞里東三層石塔의 舍利具」(美術資料第七號)
- ⑤ 一、秦弘燮 「禪林院址 三層石塔內發見小塔」(美術資料第九號)
二、黃壽永 「禪林院址石塔發見 小塔五基」(美術資料第一〇號)

資料

鶴駕山 磨崖佛立像

秦 弘 燮

榮州郡 平恩面 江東里 俗稱 절골 막등산 西北麓에 一大岩石이 突出되 고 이곳에 佛像一軀가 陽刻되었는 바 頭部가 切斷되었다. 지금 좁은 溪谷이 구비쳐 돌아가는 西北方一角에는 中央線 鐵道の 一部를 볼 수 있 으나 原來 이곳이 安東에서 서울로 通하는 國道였다고 하며 이 磨崖佛 은 이 國道와 相對해 있다.

佛像은 立像으로 胸部以上은 浮刻되었고 그 밑은 陰刻線으로 되어 있 다. 法衣는 通肩이고 衣紋은 어깨에서 平行線으로 表現되었으나 下部는 매우 희미하다. 左手는 內掌하여 拇指와 人指를 대고 右手는 亦是 內掌 하여 拇指와 長指를 대고 있음으로 무슨 手印인지 알기 어렵다. 安東 燕尾寺址 磨崖佛과 類似함을 보겠으나 右手에 花枝를 잡고 있음으로 尊名

을 決定하기 어렵다.

발 밑에서 頭部切斷線까지 約 四m 肩幅 約一·三五m이며 切斷된 頸部는 徑四五cm이다. 이 磨崖佛에서 注目되는 바는 佛像 肩部位 置에서 左側으로 高約一〇cm의 四個의 龕室이 있는 바 幅은 一六cm에서 三五cm로 大小不同이며 佛像과 接해 있는 一龕은 戒법 跏趺座한 坐像의 輪廓이 뚜렷하나 밖으로 갈수록 龕形의 輪廓線만 있어 未完成으로 보여진다. 磨崖佛에 龕室을 配置한 매우 稀貴한 遺例라고 할 것이다. 岩石 上面에 七、八個의 圓孔이 있음은 覆蓋의 施設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慶州石窟庵과 關聯지을 수 있는 石窟寺院의 一種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이곳의 地理的 位置로 보나 榮州 奉化地區의 磨崖佛과의 聯關을 생각할 때 매우 興味있는 遺蹟이라고 할 것이다.



慶州 排盤里發見 石塔材

秦 弘 燮

慶州 望德寺址 西便 慶州市 排盤二里一帶에서 耕地整理 作業 中 同里